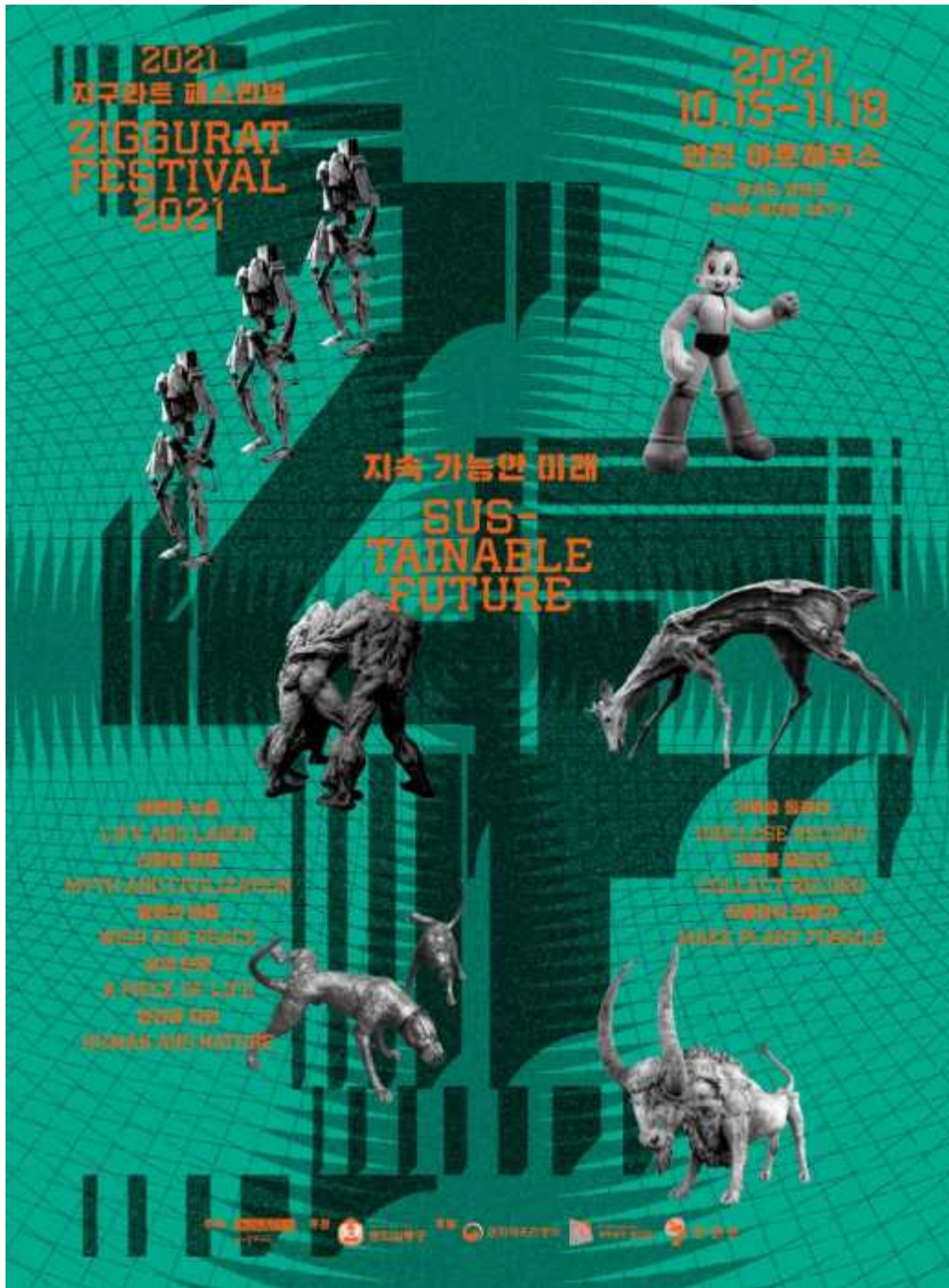


연천군 내달 19일까지 지구라트 페스티벌 (Ziggurat Festival) 개최

박정열 기자 | 승인 2021.10.17 14:03



폐벽돌공장

연천군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예정인 전곡읍 은대리 폐벽돌공장 (가칭 DMZ 피스브릭 하우스)에서 사전 프로그램인 <2021 Ziggurat Festival>을 지난 15일 개막했다.

주제는 '생명과 노동(Life and Labor)', '신화와 문명(Myth and Civilization)', '평화의 바람(Wish for Peace)', '인간과 자연(Human and

Nature)' 등이다.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지는 축제에는 작품 활동 중인 박찬용 · 이민수 · 정동암 · 장용선 · 최은동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 공간에선 벽돌공장을 다양한 시선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태산 작가의 설치 구조물, 벽돌공장 굴뚝을 배경으로 은대리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이한구 작가의 사진전, 은대리 주변의 식생을 채집 및 표본화한 김경훈 식물학자의 식생 전시를 볼 수 있다.

또 20여 년의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벽돌공장의 지킴이로 관리해 온 농부 민천희씨의 생활사 전시, 행사 기간 내 '식물화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은대리 폐벽돌 공장은 1987년부터 (주)신중앙요업 벽돌공장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1년 폐업했다. 이후로 줄곧 방치돼 있던 공간을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DMZ 거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행사 기획자인 박창식 작가는 "벽돌공장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람'들이 삶을 영위했던 곳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벽돌공장의 물리적 환경과 공간적 특성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주민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과 벽돌공장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것"이라며 "조속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천=박정열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열 기자